

# 일본의 시민 대상 건축교육프로그램 현황

## Present State of Architectural Education Program for Citizen in Japan



백 정 훈 / 한양대 건축학부 연구조교수  
 Baek, Cheong-Hoon / Assistant Research Professor, University of Hanyang  
 baek76@hanyang.ac.kr

### 1. 건축의 위상과 건축교육프로그램

일본 유학시절, 자주 가던 선술집에서 어느 노신사와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다. 살아온 길도, 전공도 건축과는 무관한 분이였다. 그러나 그 분의 건축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상식은 날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다. 비단 이 노신사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다. 일본에서 건축에 대해 관심이 높은 시민과 학생들을 만나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최근 건축수요 급감, 사업구조의 악화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위축된 건축계에 대한 일반 시민의 인식투영은 다시금 건축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국내 건축계와는 대비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일본인들이 가지는 건축에 대한 위상은 건축가와 건축물이 빈번하게 소개되는 대중매체의 영향도 크지만, 시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의해 인식의 저변 확대에 기인한 것도 무시할 수 없다.

일반인 대상 건축교육(이하 건축기초교육)의 목적은 건축의 관심 고취에서부터 집짓기 지식제공 등의 실질적인 이유에까지 다양하며,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학회 및 대학, 기업 및 법인 단체 등을 중심으로 교육 강좌가 개설, 운영되고 있다.

교육내용은 건축 및 도시환경과 관련하여 주로 기초적인 학습을 통한 이해습득 및 체험학습과 나아가 좀 더 전문적인 실무 내용이 반영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정부기관 및 관련학회에서의 교육과정 대상은 어린이부터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반면, 대학기관 및 기업체에서는 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관련 기업 또는 지역의 소규모 공방에서는 건축설계 및 시

표 1. 주체별 일본의 건축교육프로그램의 예

구분	주체	프로그램 예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국토교통성	- 경관만들기 지원사업
	지방자치단체	- 기후현 산림문화아카데미 - 교다시 재미있는 만들기 교실
학회 및 협회	일본건축학회	- 즐거운 건축, 즐거운 도시 - 집짓기 시민강좌
	건축가협회	- 어린이 건축·도시 만들기 교실 - JIA 시민 주택 강좌 - JIA 건축가와 생각하는 집짓기 - SUMAI 세미나 - JIA Talk
	교토건축사협회	- 재미있는 건축학원
대학	요코하마 국립대학	- 건축도시학 시민공개 강좌 - 시민공개 강좌 "살고 싶은 도시"
	공학원 대학	- 새로운 건축구조의 세계
기업	오픈시스템	- 교토시민의 건축교실
	- OZONE	- 집짓기 - OZONE 아카데미 - 프로페셔널 세미나

공 등의 실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일반인에게 자격증 취득과 관련한 강좌를 개설하고 있기도 하다.

본고에서는 일본의 건축기초교육에 대한 주체, 프로그램 내용 등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 2.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건축기초교육

#### 2.1 국토교통성 경관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일본 국토교통성에서는 경관마을 만들기 교육협의회를 구성하여 경관마을 만들기에 관한 교육 및 학습유형, 구성방법 등을 구축하고자 지원사업(1)을 실시하였다. 이 사업



그림 1. 국토교통성의 경관만들기 지원사업

에는 행정기관, 교사, 학생, 주민, NPO단체, 사업자, 전문가 등 다방면의 주체가 참여하였다. 행정기관에서는 경관마을 만들기에 대한 의미와 필요성을 호소하고, 교사와 학생간의 교육과 시민 또는 학생의 자율적인 학습방식을 병행하여 다양하고 지속적인 경관마을 만들기를 전개시키고 있다. 경관마을 만들기 교육의 목적은 질 높은 생활공간의 형성과 지역사회환경의 창출 등 국민적 의욕고취, 지역 환경 또는 경관에 대한 기초적 교양지식을 습득시키고 적절한 경관환경을 인식시키며, 경관마을 만들기 교육을 통한 지역 내 역사적 자산을 계승하려는 의식 개혁을 촉진하고자 함이다.

경관마을 만들기 교육 대상은 기본적으로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구체적 활동 방법 등을 고려하여 '성인'과 '학생'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의 방식은 주체별 추진형태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성되고 있다.

1) 행정기관 주체의 강좌 및 이벤트

행정기관 주체의 성인 대상 교육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강좌와 이벤트를 주최하고 참가를 촉진하는 것이 유효한

1) <http://www.mlit.go.jp/crd/townscape/gakushu/index.h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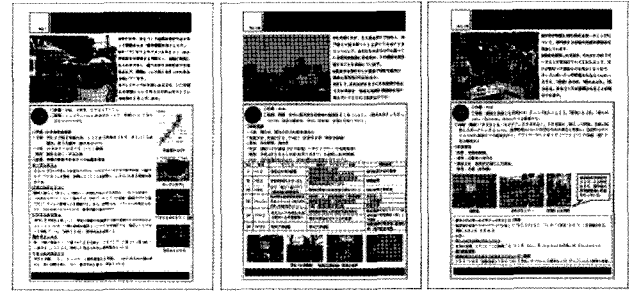


그림 2. 경관만들기 강좌 사례집

방법이 될 수 있다. 강좌와 이벤트를 만드는 방법은 이하와 같다.

- 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정보발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와 기회를 이용해서 이벤트 등 개최
- ② 관련분야의 활동에 포함: 경관에 관련된 분야의 다양한 활동에 경관마을 만들기 관점을 도입
- ③ 다양한 단체·조직을 이용: 기존의 단체와 조직을 활용해 사람을 모아 강좌와 이벤트 개최
- ④ 참가자를 모집해서 실시: 지역의 경관과 경관마을 만들기 관련 강좌와 워크숍 등을 실시

강좌에 사용할 자료를 위하여 국토교통성은 '경관만들기 강좌 사례집'과 '시민 경관만들기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경관만들기 강좌 사례집은 경관만들기 강좌 등의 다양한 사례에 관한 목적과 프로세스, 포인트 등이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으며, 시민 경관만들기 안내자료는 경관만들기 역사, 법제도 해설 등, 시민이 경관만들기에 관한 기초 지식을 배우는데 유효하게 구성되어 있다.

2) 초·중등학교에서의 경관만들기 학습 촉진

학생들에 대한 경관만들기 학습 촉진 방안에는 교원과 교장의 연수회 등에서 경관만들기 학습의 의의와 효과를 홍보하거나, 행정의 교육관계부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홍보를 촉진하거나, 수업에 공무원 스스로 강사를 역임하거나, 학습에 협력할 전문가를 알선하는 등, 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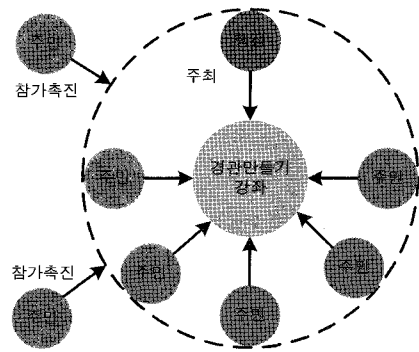


그림 3. 행정기관 주체 강좌주체 접근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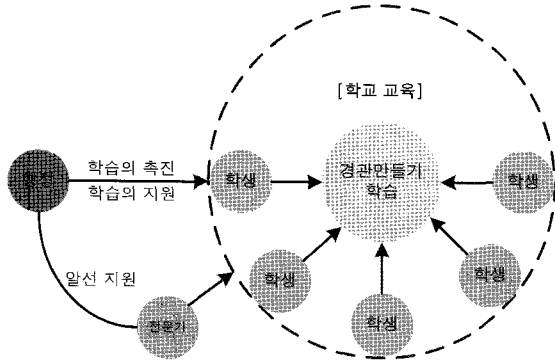


그림 4. 교육기관에 대한 경관만들기 학습 촉진 접근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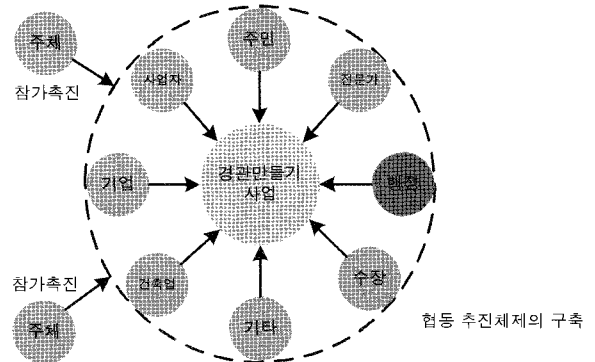


그림 6. 다양한 관계자의 협동 추진체제 구축 접근

생들의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한 지원을 실시하는 것으로 구분된다(그림 4).

학교에서 경관만들기 학습은 “종합적인 학습”에 대응할 수 있는 주제일 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 등의 학습과 조합하여 전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회과목의 지역조사와 역사학습, 국어 표현, 미술 표현 등과 관계하면서 마을 경관을 조사하거나, 경관의 인상과 느낀 가치를 시로 표현하거나, 마음에 든 경관을 사진으로 찍거나 모형을 만드는 등 경관만들기 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

국토교통성은 학교의 경관만들기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서, “경관만들기 학습의 가이드라인”, “실천 사례집” 외에 “모델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모델프로그램은 <느끼다>, <조사하다>, <생각하다>, <행동하다>라는 일련의 학습과정을 상정하고 있다. 처음에는 주변의 경관에 관심이 가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단계에 따라 현재의 마을 경관이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유와 경관만들기에 관해 생각하도록 하고, 자신을

도 할 수 있는 경관만들기에 관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연결하는 전개이다. 그림 5에 나타난 것과 같이 ①부터 ⑪까지의 11종류의 모델프로그램이 있으며,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학습을 하거나, 그림의 화살표 등을 참고하여 복수의 프로그램을 조합하는 것도 가능하다.

### 3) 다양한 관계자의 협동 추진체제

뛰어난 전문가가 포함된 사업 추진 체제를 구축하고, 해당 사업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다양한 입장의 사람들을 사업 참가자로 위치 부여하여 협동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그림 6). ‘자신도 관계자이다’라는 의식을 심어줌으로써 경관만들기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 2.2 기후현립 산림문화아카데미

기후현은 풍부한 삼림 자원이 풍부하고 뛰어난 “목수장인”과 “목조 건축”의 전통이 있다. 이 기후현에 자연과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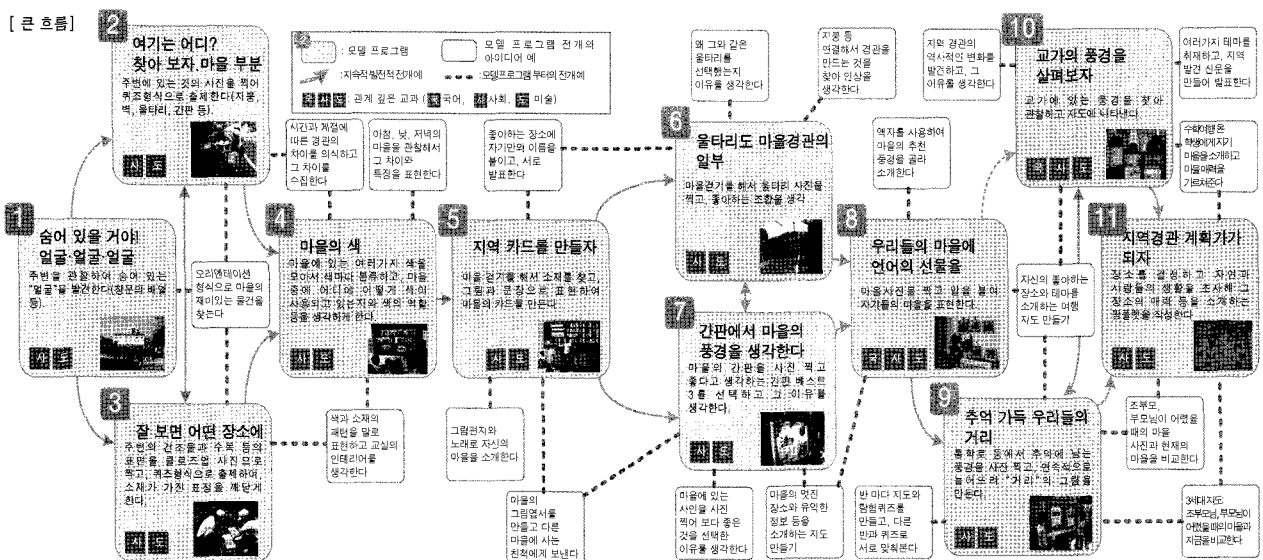


그림 5. 모델프로그램을 활용한 경관만들기 학습의 전체적 흐름

수험생	수험자격	대학졸업을 한 자 또는 동등의 실무경험자
	수업료	입학금: 282,000엔, 수업료:535,000엔
	교과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숲과 나무의 크리에이티브 학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규모의 전문 특화된 내용을 체계적으로 학습</li> <li>- 산림재생강좌, 산촌 만들기 강좌, 목조건축강좌, 물건 만들기 강좌</li> </ul> </li> <li>○ 숲과 나무의 엔지니어 학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교양에서부터 전문기초까지 집중적으로 학습</li> <li>- 산림, 임업, 목재이용의 기술자 양성</li> </ul> </li> </ul>
일반인	수험자격	일반인
	수업료	-
	교과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환경, 목공, 목조건축 등, 산림과 산림문화에 관계하는 다양한 강좌</li> <li>○ 강좌는 연속강좌, 단독강좌, 애프터 강좌로 구성</li> </ul>

그림 7. '산림문화아카데미' 교육개요

람과의 새로운 관계를 찾아 지속 가능한 순환형 사회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자유로운 실용적인 고등 교육의 거점으로서 “숲 문화 아카데미”를 설립하였다.

산림문화아카데미의 교육과정은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생애학습과정으로 분류된다. 생애학습과정의 강좌는 연속강좌, 단독강좌, 애프터강좌로 구성되며, 나무의 성질, 목공, 목조건축, 지역정비 등 일반시민이 기후현의 주 수종에 대해 이해하고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 2.3 교다시 “재미있는 만들기 교실”

교다시는 모노즈꾸리 대학과 연대해서 2008년부터 매년 7회씩 “재미있는 만들기 교실”을 개최하고 있다.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화학, 물리, 재료, 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소재를 이용하여 만들기 체험을 통해 소재가 가지는 특성을 배우고 어린이들의 창의력과 독창성을 배양하고 있다. 또한 중고등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실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표 2는 2010년도 교육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만들기 교육프로그램은 건축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어릴 때부터 고취시킬 수 있다.

표 2. 2010년도 ‘재미있는 만들기 교실’ 강좌내용

회차	강좌내용
제1회	화약 로켓트 발사
제2회	주물로 실버 펜던트 만들기
제3회	콘크리트로 인형 및 받침대 만들기
제4회	필통 만들기
제5회	건축마감재를 이용한 미술
제6회	자신의 리듬에 맞게 단급질 하기
제7회	즐거운 대나무 세공교실



## 3. 학회 및 협회의 건축기초교육

### 3.1 일본건축학회 건축기초교육

1) 즐거운 건축, 즐거운 도시 - 아이들의 공간·환경 챌린지 워크숍

일본건축학회는 1991년부터 국립과학박물관과 공동주최로 지방자치단체 및 활동단체의 협력을 얻어, 학교 교육 및 지역학습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 대상의 건축 및 도시환경강좌’<sup>2)</sup>라는 이름하에, 매년 부모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택, 건축, 도시, 환경 등의 각 전문분야에 대한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디자인, 구조, 재료, 건축기술, 주거, 인테리어, 공공건물과 시설, 지역사회, 도시 및 방화, 환경공생, 역사 및 문화재, 기타로 구분되며, 각각의 교육내용에 따라 강좌수강, 관찰 및 견학, 실험, 제작, 사고와 발견 등의 학습방식으로 진행된다. 표 3은 최근의 주요 강좌사례를 나타낸 것이다.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일본건축학회 회원과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강좌 및 전시 관련사업, 청소년 교육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일본건축사회연합회, 일본건축가협회 등의 건축 및 도시 관련단체를 중심으로 기초적인 건축내용 및 전문가적인 실무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에는 대학생들의 참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학생들은 당초 워크숍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참여했지만 최근에는 기획입안에서 당일 운영까지 중심이 되어 참가하고 있으며, 건축학회에서는 이들 학생들에 대해서 “활동증명서”를 발부하여 학생들의 참여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강좌내용을 기반으로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교재를 발간하는 등, 건축의 저변확대에 노력

표 3. 건축학회 ‘즐거운 건축 즐거운 도시’ 최근 주요 강좌

강좌명	강좌내용
지역탐험대	- 부모와 함께 동경 츠키시마 지구를 걸으면서 주변 건물 파사드나 마을 모습 등을 스케치하는 마을주변을 관찰, 견학하는 강좌
종이접기 건축세계	- 종이접기방법을 이용하여 책상 또는 집 등의 입체적인 작품 만들기 - 집짓기 내비게이션 센터(住まいづくりナビセンター)와 협력
지역공간의 스케일 체험	- 골판지를 이용하여 학생 자신이 찾대가 되어 지역 내의 건물 또는 도로 등의 크기를 측정하고 다양한 환경의 스케일 감을 배우는 학습

2) <http://news-sv.ajj.or.jp/kodomo/>

하고 있다.<sup>3)</sup>

2) 집짓기 시민강좌

시민이 원하는 주거를 얻을 수 있도록 주택 짓기 문제의 예방과 해결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2007년 10월~2008년 4월까지 “집짓기 시민강좌”<sup>4)</sup>를 개설하였으며, 정원 35명에 참가비는 500엔이다.

매년 9개의 강좌를 개설하였으며, 강좌 내용은 주택 및 토지구입의 기초지식, 소비자 입장에서 건축계획, 주택의 하드웨어, 유지관리 및 리모델링, 주택 하자 및 분쟁처리 등 소비자 입장에서 주택 전반에 관한 지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3.2 건축가협회 관동지부

1) 어린이 건축·도시 만들기 교실

생활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물건과 공간을 만드는 것의 중요함과 사회적, 미적인 가치관을 양성하기 위해서 일본건축가협회(JIA) 관동지부는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건축·도시 만들기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세계의 문화인 다양한 건축물을 배우고, 마을을 고려한 ‘시청각 수업’, 실제로 거리로 나와 생활과 마을의 관계를 조사하는 ‘공간체험’, 아이들이 느끼는 것과 생각한 것을 대화하는 ‘마을만들기 워크숍’, 건물과 마을을 생각하고, 그리며, 만드는 ‘실내학습 수업’, 실제로 재료를 조립하여 공간을 만드는 ‘옥외에서의 공동표현·옥외학습수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건축가협회는 “어린이 건축·도시 만들기 교실”과 연계하여 초중등학교의 ‘종합적 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종합적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건축가 등의 현장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표 4는 건축가협회가 개발한 ‘종합적인 학습’의 가이드라인을 나타낸 것이다.

2) JIA 일반시민 대상 건축기초교육

JIA는 일반시민이 주택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것을 알기 쉽게 전달하고 주택에 대한 기초 지식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건축기초교육을 개설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이 “JIA 시민 주택강좌”와 “JIA 건축가와 생각하는 집짓기”이다. JIA 시민 주택강좌는 일반시민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정원 20~30명에 강의료는 1,000엔이다.

표 4. 건축가 협회가 개발한 ‘종합적 학습’ 수업 가이드

- 물건을 만들기 전의 “기획이나 계획의 재미”를 알게 한다. 어떤 것을 만들기 전에 새로운 구상을 한다. 이것을 기획이나 계획 또는 설계라고 한다. 이 단계에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포함시킨다. 우리는 건축 설계 단계에서 이것을 반복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나의 “형태”를 완성하게 된다. 이 기획과 계획의 재미를 아이들에게 배울 수 있을 것이다.
- “물건 만들기의 재미”를 알게 한다. 실제 “물건 만들기”의 재미를 꼭 체험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길 바란다. 도시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건축과 주택은 지역에 따라 실로 다양한 형태와 구조를 지니고 있다. 그 건축의 “구조체의 기본”에 대하여 친구들의 공동작업을 통해서, 생각하는 즐거움과 재미(동시에 피로움)를 맛보게 한다. 열심히 사전 계획을 세우며 생각하고, 실제 물건을 만들어 보면 반드시 큰 성취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주변에 학습 소재를 찾는다. 우리의 주변에는 배워야 할 소재가 많이 있다. 거리에 나와 보면 많은 건물이 늘어서 있으며 많은 사람과 만난다. 도시는 “많은 세대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 “같은 세대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신도시”, “거주지와 상점이 혼재해 있는 도시”, “자연이 풍부한 도시”, “역사적인 도시”... 등 여러 유형이 있다. 우리는 자기가 사는 도시에 대해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는가?
- 기본적인 것의 발견. 평소의 통학로에 따라 주의 깊게 마을의 모습을 관찰하여 본다. 평소 무심코 다니는 도로에서도 반드시 새로운 발견이 있다. 마찬가지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 있다. 예를 들어 더위, 추위와 비바람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과 생명 유지에 필요한 물, 불, 식량을 확보하고 저장하는 방법을 확인하고 도구를 제대로 사용하는 등 ‘삶의 방식’을 재고하는 것 “도 필요하다.
- 마을에 요구되는 아름다움(도시의 아름다움)을 알게 한다. 도시는 “안전·안심·쾌적함·편리”, 거기에 “아름다움”이 요구된다. 각각의 건축과 주거 환경은 그 부지 안에서만 자유롭게 건축된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거리에 건축물이 늘어섰을 때, 거리 그리고 도시 경관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개별 건축과는 별도로 도시 이미지 조성에 크게 영향을 준다. “아름다운 마을”은 어떻게 하면 가능한가를 이 학습에서 느꼈으면 한다.
- 많은 것들의 관계와 그 중요성을 알게 한다. 우리는 쾌적하고 기분이 좋은 마을과 건축에 사는 것을 희망한다. “마을 및 지역”에는 건축의 집합체로서 “장소”뿐만 아니라, 마을에 “사는 사람·건축·행사·자연·생명” 등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 “마을·건물·생활”의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유년기에서 이해하고, “남녀노소, 세대가 다른 많은 사람들과 공유함으로써 전체 환경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한다.

JIA 건축가와 생각하는 집짓기 강좌는 일본건축가협회 관동지부와 리빙 디자인 센터 OZONE이 공동개최하고, 정원 30~60명에 선착순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강의주제는 표 5에서 나타낸 것처럼 일반시민이 흥미를 가질 수 있으며, 주거를 구입하고 관리하는데 실질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외에 JIA는 시민에게 바른 지식을 전달함과 동시에

3) <http://news-sv.ajj.or.jp/kodomo/yousu.html>

4) <http://news-sv.ajj.or.jp/shien/s2a/shimin.html>

표 5. JIA 일반시민 대상 건축기초교육 주제

구분	강좌 주제
JIA 시민 주택 강좌	2008년 제 1회 기초와 외벽공사의 비용과 등급의 선택 방법
	제 2회 자기에 맞는 건축가를 찾기 위해서는?
	제 3회 건축의 공사비
	2009년 제 1회 처음으로 자기 집을 건축할 때 어디에 의뢰하나?
	제 2회 주택의 주변경
	제 3회 알기 쉬운 주택 짓기의 지식
JIA 건축가와 생각하는 집짓기	제 4회 주택의 성능과 성능 값을 읽는 방법
	제 5회 건축가와 생각하는 리모델링의 순서
	제 6회 짓기 전에 알아 두어야 할 것
	2009년 제 1회 제조로서 설계와 현장
	제 2회 주택의 환경대책
	제 3회 이러한 고객은 힘들다: 건축주에게 바라는 것
	제 4회 풍경을 만드는 주택 짓기
	제 5회 협소, 추움, 어두움을 풍부함, 따뜻함, 밝음으로!
	제 6회 LDK가 만드는 가족의 연결, 사람의 연결
	제 7회 저비용의 주택, 정말 좋은 것인가?
	제 8회 도면작성만이 설계는 아니다.
2010년	제 1회 주택 짓기의 기대와 불안해소
	제 2회 우리 집을 바꿔보자
	제 3회 나에게 있어 풍요로운 주택은?
	제 4회 쾌적한 우리 집 실현을 위한 케이스 스터디
	제 5회 2세대, 3세대, 다세대 주택
	제 6회 우리 집에 적용하고 싶은 환경대책
	제 7회 마이홈 실현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
	제 8회 우리 집에 사용한 소재 및 건축자재
	제 9회 우리 집의 안심, 안전을 위한 대책
	제 10회 재건축의 고려 - 신축, 개수, 증축, 감축
	제 11회 우리 집의 외관을 생각해보자

건축가의 역할을 전하고, 건축가 일의 사회적 인지를 넓히기 위해서 실시하는 시민활동으로서 “SUMAI 세미나”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축 이외의 전문분야에서 예술가를 초청하여 건축과 예술의 만남의 장을 여는 “JIA TALK”를 1976년부터 시작되어 매년 4회씩 실시하고 있다.

### 3.3 교토건축사협회 “재미있는 건축학원”

건축사의 날을 맞아 교토 건축사회가 개최한 일회성 강연회로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건축사라는 업무를 알리고 꼭 알아야 할 건축의 전통기술과 새로운 기술을 시민들이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전통건축의 매력”, “건축기술을 배우다”, “도시와 생활”이라는 주제로 18개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 4. 대학기관에서의 건축기초교육

### 4.1 요코하마 국립대학 건축기초교육

요코하마 국립대학의 건축도시스쿨(Y-GSA)에서는 요코하마시와 공동주최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2007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옴니버스식 공개강좌 “건축도시학 시민공개강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sup>5)</sup>

건축도시학 시민공개강좌는 건축과 도시, 사회의 상호연계성을 높이면서 건축과 도시의 미래 방향성을 시민과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이 강좌의 주된 목적이다. 국내외 건축가, 도시 계획가, 사회학자, 사상가, 비평가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한다.

건축강좌와 도시강좌의 두 시리즈로 구성되며, 건축과 도시의 개념을 아우르면서 융합할 수 있는 테마를 설정하여 연간 각 시리즈 8회(총 16회)로 개최하고, 스튜디오에서의 설계 과제뿐만 아니라 여러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건축을 둘러싼 세계관을 재구축하고, 건축개념의 확산을 인식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정원 230~250명에 참가비는 무료이다.

한편 요코하마 에코스쿨과 요코하마국립대학 지역실천교육연구센터 공동주최로 “시민공개강좌 「살고 싶은 도시」를 생각하다”를 실시하고 있다. 주요 강좌 주제는 도

그림 8. 요코하마국립대학 건축도시스쿨 강좌

5) <http://www.ynu.ac.jp/hus/koho/1368/detail.html>

국내의 건축기초교육의 현황

시환경에 관한 문제로서 태양광발전, 도시계획의 환경디자인, 상점가 활성화와 지역 만들기, 도시재생 등이 있다.

4.2 공학원 대학의 건축기초교육

최근 건축구조 분야에서 환경, 자원, 구조디자인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이에 따라 건축기술자의 폭넓은 지식을 활용하여 청소년, 대학/대학원생, 일반 시민에게 건축구조의 중요성과 흥미를 감각적으로 유도하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건축구조의 관심을 증대시키고자 건축공개강좌 “새로운 건축구조의 세계”<sup>6)</sup>를 무료로 개최하고 있다.

2010년도 주요 강좌내용으로는 새로운 건축구조의 세계, 보전과 내진개보수, 건축형태와 구조디자인, 목구조의 매력, 공간구조, 실험/구조해석과 디자인, 내진 및 방화설계 등이며, 강사진은 대학교수 및 설계사무소 실무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5. 기업의 건축기초교육

5.1 교토시민의 건축교실

교토의 오픈시스템에서 운영하는 건축기초교육 강좌<sup>7)</sup>이다. 오픈시스템은 건축주가 주역이 되는 건축을 실현하기 위해서 전문성이 높은 기술과 기능을 건축주와 파트너로서 발휘하여 행동하는 건축사의 집단이다.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매월 1회 개최하며, 마이홈 짓기에 있어서 건축의 기본지식 및 일반교양 지식으로서 건축에 관한 내용을 강연하고 있다. 건축교실의 주된 목적은 표 6에서 나타나듯이, 건축주를 대상으로 주택의 건축 프로세스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강의함으로써 건축주와 건축가와의 인식의 차를 줄이는데 있다.

표 6. 시민의 건축교실 강좌내용의 예

2011년 2월 마이 홈의 계획 강좌 + α
1. 희망의 정리, 현상을 파악하자
2. zoning·평면계획을 시작하자.
3. 풍수는 사실인가.
4. 목조, 철골조, 콘크리트조의 특징을 알자.
5. 외관(입면도)을 생각하자.
6. 마감을 결정하자.
7. 공사금액은 이렇게 해서 결정된다.
8. 주택의 성능
9. 공조와 설비를 생각하자.
10. 도형을 만들자.

6) <http://www.kenchikugakubu.jp/news/2010090801.html>  
 7) <http://www.open-net.jp/site/page/jimusho/japan/kinki/kyoto/newskyoto/>

5.2 리빙 디자인 센터 OZONE의 시민공개강좌

OZONE은 건축에 관한 컨설팅, 시장조사, 시장분석 위탁업무를 하고, 주택 쇼룸, 주택이력정보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로서, 건축 관련 다양한 시민 세미나를 기획하고 개최하고 있다<sup>8)</sup>.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강좌는 집짓기 세미나, OZONE 아카데미, 프로페셔널 세미나로 크게 분류되어 있다.

1) 집짓기 세미나

주택 신축, 리모델링, 구입을 검토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각각의 분야 전문가(건축가, 건설사, 인테리어 전문가, 컨설턴트 등)가 자기만의 주택 만들기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강좌로 4시리즈 32개의 세미나로 구성되어 있다.

① 처음으로 집짓기 시리즈

마이 홈 건축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과 부동산 구입 전의 사람, 리폼을 검토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시리즈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실패 없는 토지 찾기
- 중고주택의 구입에 대해서
- 집짓기 기초지식
- 집짓기 흐름과 구조
- 리폼의 기초지식
- 자금을 고려한 집짓기
- 주택 용자
- JIA 건축가와 생각하는 집짓기

② 집짓기 성공기술 시리즈

집짓기의 착실한 준비를 위해 의뢰처의 선택방법으로부터 예산계획 방법까지 구체적인 집짓기에 대한 것을 다루며, 시리즈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1000만 엔으로 건축가와 집을 짓는다.



그림 9. OZONE 시민강좌 일정표

8) [http://www.ozone.co.jp/event\\_seminar/seminar/index.html](http://www.ozone.co.jp/event_seminar/seminar/index.html)

- 편안한 실내 냉난방 설비
- 후회 없는 의뢰처 찾기
- 좋은 주택 짓는 방법에 대해 건설사에게 묻는다.
- 건축가와 만드는 세계에 하나뿐인 집
- 단열 리폼으로 쾌적하게 생활한다.

③ 집짓기 체크기술 시리즈

주택 건축공사 체크포인트, 주택 인도 전의 체크포인트에 대한 세미나

- 지금 확인해야 할 공사 계약내용
- 거주 방법대책
- 가스와 IH
- 주방설비 선택
- 결함주택 방지 체크포인트
- 주택의 인도에 있어서 중요한 점

④ 집짓기 인테리어 계획 시리즈

- 아름답게 생활하기 위한 수납계획
- 효율성 높이는 수납방법
- 자기에게 어울리는 인테리어 방법
- 부엌에서 시작하는 집짓기.
- 사람이 모이는 거실
- 인테리어의 코디네이터의 기본과 정렬
- 가구선택과 배치
- 디자이너와 즐기는 자신만의 리폼
- 조명기구의 선택방법
- 색상과 질감이 포인트
- 바닥재 선택방법
- DIY 전의 인테리어 맞춤
- 유럽 스타일의 똑똑한 부엌 수납

2) OZONE 아카데미

자신의 감성으로 디자인하거나, 물건 만들기의 즐거움과 아이디어, 의식주에 관한 강좌

① 아름다운 시간을 가지고 싶다

더 나은 생활을 구축하기 위해서 거실 디자인의 기  
축능력을 키우는 강좌 특별편

② 인테리어 코디네이터 수업

리빙 디자인의 기초능력을 키우기 위한 강좌

3) 프로페셔널 세미나

① 조명디자인 프로 강좌 I

주택을 기반으로 응용력을 키우는 코스

② 조명디자인 프로 강좌 II

호텔과 상업공간을 포함한 종합력을 키우는 코스

③ 주택 공간 수납계획 업무의 가능성

수납을 통해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안하는 '주택 공간  
수납 플래이너' 육성의 강좌 설명회를 겸한 세미나

④ '나의 쾌적은 모두의 쾌적' 전시연동 세미나

'안심과 안전'과 '에너지절약'을 테마로 식당 주방 및  
위생 공간의 인테리어 제안에 대한 전시와 연동한  
세미나

⑤ 일본종이를 만들고, 일본종이로 만든다.

⑥ 에코혁명: 시간·공간·인간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해서 디자인의 현장으로부터 환경  
에 대한 대책, 미래지향적 에코 디자인의 힌트를 전시

⑦ 부엌 디테일의 포인트

⑧ 모던한 리빙

⑨ 조명디자인 업무의 가능성

⑩ 공업화로 본 모더니즘의 이념과 실천

모더니즘 건축의 핵이라 할 수 있는 공업화 주택에  
초점을 맞추어 조립식 주택을 포함하여 양질의 생활  
환경의 확보에 대한 강좌

⑪ 주방기기: 주방설비 기기의 올바른 지식, 최신 정보

⑫ 최신 디자인 트렌드

## 6. 일본 건축기초교육을 통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의 건축기초교육을 담당 일  
선은 초중등학교, 학회 및 협회, 대학, 기업들이 주체가 되  
어 실시하고 있다. 초중등의 경우 교과 외 수업으로 건축  
기초교육 강좌를 개설하는 경우도 있지만, "종합적 학습"  
의 일환으로 교과목에 건축기초교육을 조합하여 실시되어  
어릴 때부터 건축에 대해 접촉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교과목 프로그램 개발, 강의 자료 등은 정부기관 및  
학·협회가 지원한다. 일반 시민에 대한 건축기초교육은  
학·협회, 대학, 기업이 주체가 되어 실시하며, 건축 업무  
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를 제고함으로써 건축의 인식 저변  
확대와 함께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반인에 대한 건축기초교육이 아직 시작단  
계라 할 수 있다. 일본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기관,  
교육기관, 학회 및 협회, 기업의 유기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기관이나 시민들 스스로 건축기초교육을 시행  
할 수 있는 관계부처의 관련 기반 구축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자료 제공, 제도적·인적·재정적 지원 등이 요구되  
고 있다.